

“지장신앙 응용해 웰빙 웰다잉 등 포교”

東大 불교문화연구원 ‘지장신앙과 동아시아의 불교교류’ 국제세미나… 영담 스님 기조 강연

신라 왕자였던 김교각 스님은 중국 구화산에서 지장의 현신으로 추앙 받으며 지장신앙을 발전시킨 성인이다.

1300여 년이 지난 날, 스님의 고향이던 경주에 한국과 중국 불교인이 하나 돼 김교각 지장보살상을 봉안했다. 이어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지장 신앙을 불교 사회복지 이념으로 재조명해 포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1월 2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지장신앙과 동아시아의 불교교류’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영담 스님(조계종 총무 부장·동국대 이사·부천 석왕사 주지)이 기조강연을 맡았다. 영담 스님은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은 역대로 정치·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단한 교류를 통해 동질적인 문화를 형성했다”며 “김교각 스님을 비롯해 순도 아도 등 구법승의 활약이 있어 민족문화적 차별을 초월한 거대한 동질성을 지니게 된 것”이라 말했다.

일본 경도불교대 교수가 ‘일본의 지장신앙’을 발표했다.

영담 스님은 기조강연 ‘지장신앙과 동아시아의 불교교류’에서 “지장신앙을 응용해 웰빙과 웰다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포교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스님은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은 역대로 정치·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단한 교류를 통해 동질적인 문화를 형성했다”며 “김교각 스님을 비롯해 순도 아도 등 구법승의 활약이 있어 민족문화적 차별을 초월한 거대한 동질성을 지니게 된 것”이라 말했다.

동북아 불교신앙의 동질성은 보살에 대한 신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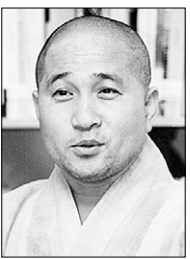
스님은 “대승불교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불교가 보살 신앙을 유행케 했다. 문수·보현·관음·지장 등 4대 보살 신앙 가운데 지장 신앙은 독특한 계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지장보살은 대원(大願)을 통해 ‘영원히 중생을 구

제하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한 부처님’으로서의 메타포를 가졌다”며 “김교각 스님이 보인 응화(應化)에서 대중들이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김교각 스님이 지장왕보살로 추앙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지장 신앙의 대부분이 사십구재 등으로 사후 신앙이지만 의례의 주체가 살아있는 권속이라는 점에서 생전·사후 신앙을 통틀어 적용된다”며 “지장신앙은 현대적 웰빙과 웰다잉을 두루 꿰뚫는다”고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참다운 웰빙은 진정한 웰다잉의 실현에 있다”며 그 경전적 근거로 <지장보살본원경>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영담 스님(위)과 한중불교 친선의 증표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봉안된 김교각 지장보살상.



<대승대집대방광심결경> <지장시왕경> 등을 들었다.

<대승대집지장심결경> 서품에는 “만약 여러 유정(有情)이 굶주림에 핍박당하거나 의복, 의약, 침상과 이불 등 생활도구가 모자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원하는 바가 모두 만족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스님은 이 구절이 “절대적 빈곤에 대한 복지를 실현하는 부분”이

라며 “지장 신앙과 관련된 경전 곳곳에는 노인복지, 교정복지 등 현대의 사회복지에 응용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지장보살 본원사상에 입각한 불교 특유의 복지시스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불자는 물론 모든 이들에게 이의도록 힘이 지장보살의 본원을 실현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장충 연구원은 “7월 30일 지장탄신일은 김교각 스님의 성도일·열반일·탄신일이 7월 30일인 것과 관련 깊다”면서 “지장의 화현으로 불린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서 왔다는 것은 중국과 한국인의 불교교류의 계기를 강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인환 스님은 절원 심원사, 원심원사 석대 지장암 등 국내 지장성지의 열현 사례를 통해 지장신앙에서의 참회 정진의 의미를 살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가 욕망 과잉시대 해법”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주장

“불교의 자아관·교육관이 욕망 과잉 시대의 해법이다.”

박범석 동국대 BK21 연구원은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가 11월 13일 가톨릭대 성심교정에서 ‘인간의 욕망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주제발표 ‘욕망의 관점에서 본 불교의 교육론’을 통해 “불성의 인간관은 자아실현이 아닌 자아초월을 교육적 은유로 삼는다”면서 “매 순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것을 촉구하는 불교의 자아관과 비우고 버릴 것을 강조하는 불교의 교육관은 현대사회에 많은 시사



박범석 동국대 BK21 연구원(가운데)은 11월 13일 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욕망을 통한 불교의 교육론을 고찰했다.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도원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 ‘유가 욕망론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고찰’에서 “유가는 욕망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며, 그 조절은 자신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과의 완전한 소통 즉 자유를 지향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문정대비·보우 스님 재조명

한국불교학회 28일 제50회 전국불교학술대회

승유역불 하에서 사그라들던 조선불교의 당간을 높이 세운 문정대비와 보우대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 전국불교학술대회장 현종)는 11월 28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조선중기 불교진흥과 그 주역들’을 주제로 제50회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문정대비의 불교

부흥과 한국불교’를 비롯해 고영섭·김상현 동국대 교수가 각각 ‘허응보우의 불교진흥’과 ‘문정대비의 불교진흥’을 발표한다. 또,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이 ‘허응당 보우의 정토관’을, 이봉춘 동국대 교수가 ‘보우의 불교사상과 유·불 조화론’에 관해 주제발표한다.

이에 앞서 응용불교 등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가 열리며, 학술대회 후에는 정기총회도 개최된다. (02)2260-3130 조동섭 기자

“여섯방향 예배가 불교의 사회참여”

불교학연구회 ‘깨달음의 사회화’ 학술대회서 김재성 교수 주장

불교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이다. 깨달음은 개인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중생을 이끄는 이타(利他)의 행이다. 하지만 불교적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등 사회화의 문제는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풀고 고민돼 왔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의 ‘여섯 방향에 대한 예배’를 통해 부처님 당시부터 강조된 불교의 사회참여를 설명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11월 14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초기불교의 깨달음과

사회참여’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부처님 당시 깨달음은 대부분 출가자의 몫이었으나 재가자가 깨달은 사례도 있었다”며 “출가자가 구분 없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차별 없는 사회참여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설법의 형태로 사회참여가 이뤄졌다”며 “재가자들에게 법에 의한 정치를 강조하고 대인관계의 상호의무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부처님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 친구와 동료, 고용주와 고용인, 재가자와 종교지도자 등으로 분류하고 ‘여섯 방향에 대한 예배’를 설명했다.

자식은 부모에게 봉양과 가족전통의 계승, 유산의 가치 있는 승계, 부모의 사후를 위해 보살할 것을 강조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악을 멀리하도록 하고, 선행을 보이며,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자를 찾아 적당한 때에 유산을 물려줄 것을 권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 인사하기 위해 일어나고, 기다리고, 배우려 하고, 섬기려 하고, 배운 기술을 숙련할 것을 설명했다. 스승은 제자에게 기초부터 완전하게 가르치고, 추천하며, 모든 방향에서 안전함을 줄 것 등을 강조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하고 알리지 않으며 신뢰를 얻고 권한을 나누고 장신구 등을 사줄 것을, 아내는 남편에게 일을 잘 처리하고 하인들에게



11월 14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사회자 미산 스님과 발표자 김재성 교수, 논평자 조준호 교수(왼쪽부터).

친절히 대하고, 신뢰를 얻고, 가계를 지키며 맡은 모든 일을 숙련되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구와 동료에게는 선물과 친절 한 말, 약속 등을 지키는 한편, 두렵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고 그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등을 강조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능력에 따른 일을 배당하며 음식과 임금을 지급하고, 아플 때 돌보며 맛있는 것을

나누고, 적당할 때 쉬게 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인은 고용주가 일하기 전에 일어나고, 잠든 후에 잠을 자며,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일을 잘 처리할 것 등을 말했다.

김재성 교수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돌봄을 강조한 불교의 가르침은 사회를 결속시키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지침”이라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연기론과 다윈 진화론의 만남

미디어붓다 27일 다보원서 학술대회

다윈 탄생 200주년인 올해, 붓다의 연기론과 다윈의 진화론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미디어붓다’(대표 이학중)는 11월 27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붓다와 다윈의 만남’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한구 성균관대 교수가 ‘진화론의 철학’을, 홍성욱 서울대 교수가 ‘진화론과 기독교, 그리고 그 관계가 불교에 말하는 것’을,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진화론의 불

교적 함의’를,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불교와 다윈니즘’을 발표한다.

이학중 대표는 “연기론과 진화론의 비교는 현대 과학과 불교의 소통 문제에서 새로운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진화론을 통해 생물학이 불교로 설명될 때 어떤 논리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 등 불교의 과학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9-5557 조동섭 기자

신입생 모집

칭기스칸 대학교

chinggis khaan university

한국캠퍼스 한국승가대학 세계화교육

- 학사과정(4년제) :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석사과정(2년제) : 4학기 ■ 박사과정(3년제) : 6학기

특 전(한국불교재단)

1. 전세계 대학 편, 입학 인정.
2. 대학 등록금 저렴함 (타. 대학의 학비절반)
3. 장학금 제도 및 공부시간 여유 있음.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한국승가대학 불교문화대학원

- 전문과정(1년제) : 종교학(불교문화학과)
- 불교문화 강좌내
불교학, 수행학, 종교학, 경전학, 철학, 의식학, 법회학, 교리학, 경영학, 생이학.

문의 : 학무처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